

0902

**7기 대동학교를 이끌어 갈 교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6년 동안 민족 복원의 가슴속에 자리 잡았던 대동학교가 올해들어 7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어느 시기마다 중요하지 않은 때가 있었겠나만은 올해 대동학교의 중요성은 97년 정세에 비추어 볼 때 또다시 크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동학교란 무엇인가? 왜 올해는 더 중요한가? 에 대해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합시다.

**1 대동학교란?**

자주여성 민주남성 대동학교는 이름처럼 올바른 여성관, 남성관 그리고 인간관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총여학생회가 주최한다고 해서 여성문제만을 논하는 곳이 아니라 새내기들이 대학 4년을 어떻게 보낼 것이며, 앞으로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듣고 선배들과 진지한 토론을 해 보는 장이라 할 것입니다.

**2 97년의 정세와 총여학생회의 기조에 기반한 대동학교**

얼마전 있었던 3월 24,25,26일 총투표와 28,29일 총궐기를 돌아봅시다. 51.4%의 투표율과 78%의 찬성률로 총궐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졌고, 총궐기 또한 600여명의 학우들이 참가하여 힘있게 진행되었습니다. 민족복원의 시대 양심들의 반김 분위기 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대통령은 사라졌다'라고 커버스토리를 쓸만큼 김영삼에 대한 불신의 분위기는 높아가고 있습니다.

김영삼 정권은 96년 12월 26일 노동법,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와 한보사태로 인해 집권이후 최악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고, 김현철에 대한 비리가 잇달아 터지면서 이제 국민의 신뢰도는 3%를 밑돌고 있습니다. 각계 각층의 민중들과 우리 이만 복원학우들이 김영삼 정권에 대한 분노로 폭발직전에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청년학생들이 절대로 사태를 방관하거나 좌시할 수는 없습니다. 더이상 기대할 것도 없는 김영삼 문민독재정권과 싸워 민주주의를 되찾는 것이 우리 청년학생들의 임무입니다. 총여학생회도 총노선의 2대 기치 중 첫번째 기치를 김영삼 타도입니다.

이렇게 급박하게 흘러가는 정세 속에서 97 새내기 사업 또한 그 흐름을 타고 가야 할 것입니다. 해마다 대동학교는 각 단대의 새내기들을 조직화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놓여 왔습니다. 이제껏 3월 초에 대동학교를 열었던 것도 그러한 이유에 서이며 올해는 일정을 잡는 시기가 미뤄져서 단대 모꼬지 등 많은 행사로 인해 4월 14,15,16일로 시기가 많이 늦어졌으나, 대동학교의 위상은 변함이 없습니다. 새내기들에게 대학 4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선배들과 함께 하게 하고, 현재의 고민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그대로 던져주기보다 선배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것입니다.

올해는 4.9제 뒤에 대동학교가 놓이기 때문에 새내기들의 의식흐름 또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새내기들의 고민이 한껏 많아진 4월에 새내기들을 최대한 조직화해서 새내기들의 고민을 총화하고 올바르게 풀어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대동학교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 3 97년 7기 대동학교 위상과 의의

1. 4.9로 모아진 새내기들을 다시 총화하는 장이 되어야겠다. 올바른 삶에 대한 고민과 삶의 가치관에 대한 고민을 총화해 주어야겠다.
2. 어느때보다 의식수준이 높은 새내기들, 4.9를 지나며 의식수준이 많이 높아진 새내기들에게 고민하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장이 되어야겠다.
3. 의식수준이 높은 새내기들이지만, 여성문제에 대한 고민의 수준은 아직 미미하다. 새내기들에게 지금까지의 대동학교처럼 여성문제에 대한 초보적인 인식을 남기기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여성문제에 대해 깊은 고민을 던져주고, 실천하게 해야겠다.
4. 단순한 여성문제에 대한 내용만을 풀지 않도록 하여 자주적 여학생회의 사상이 여성자주화 사상이라는 것을 새내기 뿐만 아니라 학생회까지도 합의하도록 하는 장이어야겠다.
5. 4.9를 지난 뒤의 시기이지만, 전단위의 결합력을 높여 복현 전체가 집중하여 어울림의 장으로 만들어야겠다.

### 4 교사들은 이렇게 합시다.

1. 대동학교의 의의를 일단 체화합시다. 특히 여성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 여성자주화 사상의 합의, 올바른 삶에 대한 고민과 가치관을 새내기들에게 심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2. 첫날의 강연 내용, 둘째날의 세상속으로의 내용을 모두 알아야겠습니다. 열정만으로는 새내기들의 고민을 풀어줄 수 없기에 첫날과 둘째날의 토론을 잘 가져가기 위하여 교사들은 모든 내용적인 면들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3. 새내기들이 많은 것을 배워가더라도 즐겁게 배워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공동체란 이래서 좋구나 함께하는 삶이 너무나 즐겁다는 평가가 넘치도록 조원들의 인간적인 관계에 끊임없이 신경쓰도록 합시다.
4. 토론 때 뿐만 아니라 매시간시간마다의 새내기들의 말을 총화합시다. 토론때는 물론 어려운 점도 있겠으나 되도록이면 참가자들이 많은 말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줍시다. 또한 결론까지도 참가자 스스로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행여 올바른 결론이 나오지 못하더라도 조바심내지 말고 이후 후속작업을 고민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행사 중에는 새내기들과 함께 하고 그 속에서 전체 대동학교의 분위기를 파악하여 교사 모임에서 총화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1 자주적 여학생회와 여성 자주화 사상

우리 사회의 여대생이라고 하면 노동 착취와 봉건적 천대속에서 억압받는 삶을 살아가는 대다수 근로 여성들과 비교해 어찌면 특권적 처지에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대생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받고 사회의 중간층 이상의 남성과 결혼하여 계급적 상승을 꿈꿀 수도 있는 존재이며 문화적 생활을 누리고 무엇보다도 하루하루를 살기위해 발버둥 쳐야 하는 생존을 위한 노동으로부터 면제받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 사회는 다른 어떤 사회보다 여성을 억압하는 지점이 첨예하게 드러나지 않으며 사회문화적으로 진보적이기 때문에 자기표현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대학사회의 이러한 성격은 여대생에게 정치적 각성과 의식성을 불러일으키기에 용이한 조건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여성문제에 대하여 자신이 크게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성문제를 깨달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즉 여대생이라는 처지는 자신의 노력이면 여성으로 차별받는 부분을 무마할 수 있다는 의식을 성장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개인적인 생활에 매몰되고 사회적인 여성억압에 대한 부분을 자신의 삶과 동떨어져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학년에 들면서 개별화 되는 경우가 많고 문제를 집단적으로 풀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분노와 좌절을 느끼면서도 뚜렷한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고자 하는 여학우들의 모습속에는 대학사회가 점점 경쟁의 장이 되어가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개인화 경향이 커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의 주인은 사람이며, 인간은 자주성, 창조성, 목적의식성을 가진 존재로서 사회의 개조를 이루어가는 주체입니다. 여성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들의 이러한 자주성, 창조성, 목적의식성이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게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사회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 즉, 여학우 자신의 삶을 규정하는 한국사회의 현실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2차대전 이후 제국주의의 식민지 내편과정에 포섭되어 철저하게 그 자주적 발전을 봉쇄당해 왔습니다. 한국사회의 자본주의화는 식민지 종속발전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여성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의 보편적 여성문제에 식민지적 모순이 부과됨으로써 한층 심화되고 파행적 성격을 띠며 나타납니다. 남녀 차별구조를 이용한 제국주의의 노동 착취는 여대생의 사회적 진출을 가로막고 있고 이러한 지배질서 속에서 더욱 공고화되어지는 봉건적 사회관습은 여대생으로 하여금 성차별의 모순에 빠지게 합니다. 또한 분단된 상황에서의 올바른 민주주의가 성숙되지 못함에 따르는 여성전반에 관한 인식은 물론 복지적 측면의 발전도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한국사회의 여성문제의 특징이라 한다면 한국사회 여성운동의 올바른 지향점은 무엇이어야 하며 이 속에서 여학생 운동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도출됩니다.

남한내 여학생 운동은 여학우들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를 실현시켜나가고 학원

내에서 여학우들의 역할을 높여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중운동이며 이러한 여학생 운동의 자기지향은 여학우들의 자주적 요구를 짓밟는 제국주의와 지배세력을 반대하고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변혁운동과 밀접히 결부되어 그 속에서 여성의 사회적 해방과 남녀평등을 실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성의 지위향상이나 이익만을 대변하는 여권신장주의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으로 여성의 자주성을 억압하는 근본적인 모순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인식하였을 때만이 여학생 운동의 이념과 자주적 여학생회를 올바르게 구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학우들의 모습은 우리 사회와 민족의 운명과 떨어질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남한 사회에서의 여학생운동은 전체 민족민주운동의 한 부문운동으로써 식민지적 모순에서 나타나는 민족문제, 분단이라는 상황이 가져다주는 분단문제, 자본가와 여성노동자 사이의 계급문제에서 비롯되는 여성억압의 근원적인 척결을 위해서 자주, 민주, 통일의 과제를 위해 투쟁해야 합니다. 여성이 자기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나서며, 주인 주체로 서기 위해 자기 삶과 민족의 삶을 일치시켜 내는 것 이것이 바로 **여성자주화 사상**입니다. 이러한 여성자주화 사상을 무기로 여학우들의 본질적 모습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여대생의 삶의 모습 하나하나에서부터 자주여성으로의 발전적 삶을 이끌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학생 운동의 방향이 될 것입니다.

## 2 여학생 운동의 지위와 역할 - 학생운동의 부문운동으로서

어? 학생회도 있고 여학생회도 있네! 뭐가 다르고 뭐가 같은거지? 라는 의문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이러한 의문을 풀어보기 위하여 학생회와 여학생회의 관계를 알 수 있는 토대가 되는, 전체 학생운동에서 부문운동으로서의 여학생운동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대학생으로 가지는 사회적 처지가 형성, 발전되어 청년학생으로서 부여되는 사회변혁운동을 수행하는 것이 학생운동이라 말합니다. 부문 운동이란, 급변하고 전문화된 사회속에서 가지게 된 대학생이라는 처지외에 자신이 속해져 있는 처지 - 동아리 활동이나 신문사, 방송국 등-에 기반해 사회변혁운동을 펼쳐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노래패나 풍물패는 문예운동을, 동아리인들은 동아리 운동을 하며 그것들이 결국에는 전체운동으로 모여져 또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이해와 요구를 충족시키며 학생운동의 모습을 다양화, 풍부화시켜 내는 것입니다.

여대생이라는 위치 또한 마찬가지로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대학생이라는 처지외에도 가지고 있는 여성이라는 지위, 그것에서 비롯되는 성모순을 깨어나가는 여학생운동은 전체 학생운동에서 부문운동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이라는 지위는 다른 부문운동이 가지는 사회적 처지와는 다릅니다. 여성이라는 지위는 문예일꾼이나 동아리인들처럼 자기의 의지에 의해 선택된 것도,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 자신의 삶이 평생동안을 규정받고 그 방식 역시 아주 오랜기간 동안 치밀하게 공고하게 적용되어 온 것이라 쉽게 본질을 규명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여학생 운동을 다

른 부문운동보다 더 책임감 강한 주체의 의지를 요구하며 더 높은 위상을 가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고 있는 남한사회, 그 속에서 여성의 지위를 살펴봅시다.

외세에 의해 유입된 자본주의에 의한 문란한 성문화, 성상품화, 일제시대 그 역시 외세에 의해 굴욕적인 삶을 사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정신대 할머니의 모습, 나라를 지켜준답시고 우리 어머니, 언니들을 마음껏 유린하는 주한미군, 우리의 처지는 계급모순, 민족모순, 성모순의 세가지가 교묘히 결합한 형태에 의해 규정 지워 지는 것입니다. 단지 성모순을 깨어버린다 해서 여성해방은 오지 않고, 민족모순, 계급모순을 깨어버린다 해서 여성해방은 오지 않습니다. 이 세가지 모순을 모두 깨어버리는 길 - 즉, 여성해방운동과 사회변혁운동이 수반되어야만이 진정한 인간해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구되어지는 여학생운동의 모습은 전체 사회변혁운동을 수행함과 동시에 여성이라는 처지에서 근거한 여성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일 것입니다. 학생부 운동운동으로서의 여학생운동이 가지는 위치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민족의 자주화와 더불어 여성해방세상을 위해 달려나가는 것이 자주적 여학생회의 모습입니다.

### 3 여성문제의 이해를 위해

여성문제란 여성이기때문에 가지는 억압과 모순의 총체, 즉 여성이 자주적인 인간으로 서는 과정에서 나서게 되는 문제를 말합니다. 여성운동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억압과 모순을 타파하고 여성을 자주적인 주체로 일으켜 세우고자 하는 운동입니다. 지금까지 여성운동을 남녀 평등만을 이야기하는 운동으로 이해하던 측면도 없지 않았습니니다. 이는 50년대후 이전까지의 혁명적 여성운동의 흐름이 단절되고, 서구의 자유주의 여성운동이나 급진주의 여성운동이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관제 어용적인 여성운동만이 존재하면서 이들의 활동 내용과 방식이 영향을 미쳤던 데서 결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0년 중반 이후 여성운동은 그때까지의 어용적이었던 여성운동과 단절을 하고 민족민주운동으로서 자기전환을 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주, 민주, 통일의 이념을 여성운동이 받아들이기 시작했으며 실천적인 면에서도 전체 변혁운동의 흐름에 동참하고자 하는 시도가 연이어 나타나게 된것입니다.

여성에게 가해지는 억압과 모순의 해결은 여성이 존재하는 사회현실과 더불어 생각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여성자주화의 사상과 실천으로 광범위한 여성들이 사회모순에 눈을 뜨고 투쟁에 나서게 되었던 것은 여성운동의 지향점을 제시하는 뚜렷한 방향타의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성운동은 이념적, 실천적으로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해명하고 실천적으로 풀어보았던 내용은 아직도 극히 적은 부분에 불과하며 이후의 힘찬 전진을 기약해 봅니다.

#### -여성억압의 기원과 여성운동

여성문제는 생활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때로는 의존적이고 모자란

것이 여성의 아름다움인양 애기되기도 하고 때로는 한사람에게는 벽찬 3종의 역할을 거뜬히 해내는 해내는 수퍼우먼이 진정한 여성상인양 묘사되기도 합니다. 방송매체에서, 교육에서, 법에서, 노동현실에서.... 사회 어느 한 구석도 빠지지 않고 여성에게 다양한 요구를 합니다. 사회재생산의 의무와 동시에 모권이 박탈당하고 직장으로 나서야 하는 동시에 낮은 임금과 열악한 환경으로 다시 궁지에 몰려야 합니다. 자본 논리에 의해 야한 여자가 되어가면서 한편으로는 성폭력에 몸을 사려야 합니다. 이외에도 여성문제는 사회 곳곳에서 무수한 형태로 도사리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가? 남자에 의한 여성의 착취때문인가, 사회적 구조 때문인가, 아니면 또 다른 이유 때문인가하는 여성억압의 기원을 밝혀내는 것은 곧 여성문제 해결방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문제와 동일하다 할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까지 여성문제를 바라보는 데는 몇가지 상이한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여성문제가 남녀의 신체구조의 차이 즉, 생물학적 차이 자체를 없애는 것(예를 들면 여성의 근력강화, 동성연애 등)으로 보고 -급진주의 여성해방이론, 또 어떤 이는 남녀의 차별의 관습이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생각을 변화시키고 법과 제도 변화만을 해결 대안으로 내놓기도 합니다 -자유주의 여성해방이론. 또, 여성문제를 사회구조적으로 발생한 사회 역사적문제로 파악하여 사회변혁 운동 속에서 그 해결점을 찾기도 합니다 -맑스주의 여성해방이론. 또, 어떤 이는 사회구조적 문제와 가부장제라는 성차별 구조가 이중체계로서 여성을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사회주의 여성해방이론.

이상과 같은 4가지 여성해방이론은 각기 나름의 이론체계와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 단순히 위 이론들을 암기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서 이론들을 살펴보는 까닭은 여성억압의 기원을 어떠한 관점으로 이해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여성문제는 원래 착취 사회의 발생과 그 시기를 같이 하는 매우 오래된 문제입니다. 인류가 무계급 사회에서 계급사회로 진화하면서 그때까지 단순한 생물학적 차이로만 인식되었던 남녀의 차이가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차이로 옮겨졌습니다. 이때문에 사회의 착취구조를 형성하고 이를 뒷받침해 주는 형태로 여성차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인류역사의 매 시기 여성차별의 구체적 형태와 주요한 지배세력이 바뀌기는 하였으나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여성문제는 지속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배세력은 성차이를 구실로 하여 자기의 지배구조를 온존, 강화하기 위해서 여성을 부당하게 유린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성문제는 단순한 여성대 남성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의 개혁의 문제까지 포함하는 문제로 인식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남녀평등을 외쳤던 여러 형태의 여성운동이 있었지만, 여성 운동의 당파성을 가름하는 것은 바로 성 모순과 사회전체적 모순과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4가지 여성해방이론 중 맑스주의 여성해방이론은 사회적 문제에서 기인된 여성문제를 옳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물질과 의식, 생산력과 생산양식에 의해 사회문제의 발생원인을 찾고 그중 여성 억압의 기원을 계급의 발생, 즉 사적 소유의 발생으로 보고 이의 타파를 위해 민중들이 역사발전의 합법칙성에 기인하여 운동을 한다는 측면은 여타의 여성해방이론이 사회적 관계를 옳게 파악해 내지 못한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맑스주의 여성해방이론이 갖는 한계점 또한 분명합니다. 즉 역사 발전성과 인간성을 수동적 현상으로 규정해 버린 것입니다. 이로 인해 여성운동이 발생, 발전하는데 여러가지 원인 중 결정적 요인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주인은 사람이며, 인간은 자주성, 창조성, 목적의식성을 가진 존재로서 사회의 개조를 이루어가는 주체입니다. 여성운동에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성 문제는 모든 여성이 자신의 자주성과 창조성, 목적의식성을 깨치는 과정에서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 4 여성다움, 남성다움은 타고나는 것이다?

인간의 특성을 분류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성별 분류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공주님인지, 왕자님인지를 가장 먼저 묻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에 어울리는 옷과 장난감의 색깔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정보인 것입니다. 혹시 딸에게 파란색 옷이나 아들에게 분홍색 옷을 사가는 결례를 하지 않도록 사람들은 아주 세심하게 신경을 씁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 대하여 가장 많은 정보를 주는 것도 그 사람의 성입니다. 첫 만남에서 상대가 여자일 때 보통 사람들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기질에 대한 대략의 기대를 가집니다. 그 기대가 빗나갔을 때 흔히 '여자답지 않다'고 말합니다. 물론 상대가 남자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인 진학이나 취업을 결정할 때도 개인의 성별 요인은 상당히 중요하게 관련됩니다. 대학의 어떤 학과는 여성에게 혹은 남성에게는 적절하지 않겠단느니, 어떤 직업은 남자가 또는 여자가 할 일은 못된단느니 등등의 성적 고정 관념이 작용합니다.

연애와 결혼에서도 상대자가 성에 맞게 여성다워야 또는 남성다워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조건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의식적이든 혹은 무의식적이든 사람의 성별에 따라 성에 맞는 보편적 특성을 기대하며 여기에서 벗어나는 특성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잘우는 남자, 잘 토라지는 남자, 혹은 행동이 거친 여자, 욕을 잘 하는 여자를 생각해 봅시다.)

문제는 거부감을 느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녀는 성심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남녀의 역할, 지위가 다른 것은 자연의 현상으로서 어찌할 수 없다는 인식들이 많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여성답다 혹은 남성답다고 지칭하는 성심리적 특성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몇몇 전문가들에 의해 밝혀진 일반적인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적 특성: 양보를 잘한다. 명랑하다. 수줍어한다. 애정을 갖는다. 아침을 잘한다. 충성스럽다. 이해심이 많다. 온정적이다. 암전하다. / 의존적, 주관적, 수동적, 비경쟁적이며, 모험심이 적고 자기 신뢰정도가 낮으며 야망이 없다.

남성적 특성: 자신감이 있다. 신념이 강하다. 독립적이다. 리더십이 있다. 모험심이 많다. 자기 충족적이다. 공격적이다. 개인주의적이다. 야망이 있다. 경쟁적이다. / 독립적, 객관적, 경쟁적, 모험적이며 자기 확신이 크다.

그러나 남녀의 사회 심리적 차이에 대한 종합적 연구에 의하면 그동안의 성차에 관한 주장들을 재분석한 결과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특성을 남녀 차이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연구에 의하면 단 네가지 영역에서 남녀의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여성은 남성보다 언어 능력에서 우수하고 남성은 수리 능력에서 여성보다 높은 능력을 나타내었다고 합니다. 또 남성이 여성보다 공격적이었으며 시각, 공간 능력에서 남성이 우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차도 어렸을 때는 발견되지 않고 청년기에 와서야 나타내었습니다. 이 말은 태어날 때부터 능력을 다르게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양육 환경과 사회화 과정, 교육의 차이에서 이러한 차이가 생겼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생물학적 차이는 과연 남녀의 지위와 역할을 구분지을 만큼 결정적인 것인지 살펴봅시다. 근육조직에 있어서 남자는 평균 근육이 육체 전체의 42%이고 여자는 36%로 조직되어 있어 남자 체력이 강한 것은 생물학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시적 완력을 발하는데 남자의 힘이 더 세다는 것입니다. 다만 인내력, 지구력, 생명력 등은 여자가 더 강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녀를 똑같이 알몸으로 찬물에 넣으면 남자는 14시간, 여자는 34시간 견딘다는 신문 보도가 있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체력도 양육, 음식물, 운동, 단련 등과도 상관성이 많은 것이며 문명은 체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기술, 무기, 지식 등의 방법으로 진전되며 특히 현대사회는 체력의 강약을 이유로 지위와 지배의 결정 요소가 될 수는 없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성차에 대한 고정관념은 왜 존재하는가?

그것은 남녀의 실제 차이보다 터무니없이 과장되고 왜곡된 성적 고정 관념을 계속 강화하는 사회적 환경과 성장 배경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부엌에서 일하는 어머니와 밖에서 보다 생산적으로 보이는 일을 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성장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러한 가정 환경이 지극히 정상인 것으로 인식



하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들보다는 딸에게 순종과 부드러움을 강조하고 때로는 의존심도 격려합니다. 이러한 양육 환경 속에서 성적 특성이 자연스럽게 내면화되는 것입니다. 가정밖에서도 성적 고정 관념을 강화하는 환경은 더욱 다양하고 성차를 기정 사실화하는 데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또래 집단, 학교의 교과과정, 교사들의 교육 태도, 텔레비전과 신문 잡지의 광고나 내용들, 어느 것에서도 우리는 성차에 대한 메시지를 찾아내는 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역할 고정을 유도하고 강화하는 부모의 양육 태도나 학교 환경, 그리고 대중 매체의 막강한 영향으로 여성은 여성적 특성을, 남성은 남성적 특성을 발달시키게 됨으로써 성차는 우리 사회에서 분명한 사실처럼 인식되고, 이러한 인식들은 남녀 모두에게 개인의 본성에 따른 개성적 삶을 허용하지 않고 일정한 틀에 매여 살도록 강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역할 고정의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선 여성에게 미치는 부정적 결과부터 살펴봅시다.

첫째, 전통적인 성역할을 강조하는 사회에서 성장한 여성들은 아내와 어머니로서 자신의 역할을 규정하게 됩니다. 그 결과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서 자아 정체감을 확립하지 못하고 누구의 아내 또는 어머니로서 자신의 역할을 한정하여 의존적 존재로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전통적 여성 역할의 고정은 여성의 학업과 직업적 성취 욕구의 저하를 가져옵니다. 분명히 초등학교 시기에 여아들은 남아들보다 지적으로 열등하지 않고 오히려 우수함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반대 양상이 나타납니다. 여학생의 학업 능력이 상대적으로 남학생보다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입 수학능력시험의 상위권 학생 가운데 여학생은 30%미만입니다. 여학생들은 직업 선택을 위한 준비도 소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여자 대학생들은 고학년이 될수록 점차 학문적 직업에 대한 목표를 포기하고 그 만큼 아내가 되는 일에 관심을 갖습니다. 교육 수준이 높고 성적이 우수한 여성들 가운데 취업을 하지 않고 결혼하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남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 점은 유사하다고 합니다.

셋째, 전통적 여성 역할의 고정은 여성의 자존감을 낮추게 됩니다.

고학년으로 갈수록 남학생의 의견은 적극적, 긍정적이고 여학생의 의견은 소극적, 부정적으로 되어 간다고 지적한 연구가 있듯이 여성의 자기 평가는 전통적 성역할을 수용할 수록 낮아집니다. 자신의 지도력, 지능, 신뢰감 등에 대한 평가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낮습니다. 여대생조차, 남자들이 이른바 개성보다는 여성적 특징을 지닌 여자를 원한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성 자신이 학문적, 직업적으로 성공한 여성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는 여성의 여성 비하라고 할 수 있겠지요. 남녀 모두 남성성과 관련된 특성은 특히 여성성과 관련된 특성보다 가치 있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느낌으로써 여성의 자존감은 낮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성은 어떠할까요?

성에 따라 고정된 역할을 기대하고 적응시키는 것은 오히려 남성에게 더욱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언뜻 보아 남성들은 남성적 고정 관념이 팽배한 사회에서 사회적 특권을 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남성에 대한 성 역할 고정 때문에 여러 부문에서 남성들도 불행을 감수하며 지내게 되는 모습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성역할 고정으로 남성의 대표적인 역할은 일생동안 가족을 부양하는 짐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의 부양이 매우 긍지를 느끼는 역할로 여겨지지만, 가족 부양에 대한 책임 때문에 일생 동안 싫어하는 일일지라도 계속해야 하는 것이지요. 종사하는 직업이 싫어서 전업을 하고 싶어도 가족 부양의 전적인 책임 때문에 그만두지 못하는 남성들이 많습니다. 배우자가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좋아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통적인 남성의 역할인 가장노릇을 잘 해내는 일은 현대사회가 과거보다 더욱 힘듭니다. 직업적 요구가 지대하기 때문에 가족과 지낼시간이 부족하고 아내와 자녀는 남편과 아버지가 함께 지낼시간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남편으로서 또는 아버지로서 남자는 사회적 직업적 성공과 벌여들이는 수입에 의해 평가를 받으므로 일에 대한 긴장과 스트레스속에 갇히게 됩니다. 남자들의 평균수명이 여성보다 짧은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할 수 있겠지요.

둘째, 남성의 성격은 남성적이어야 한다는 고정 관념은 현대 사회의 남성들이 건강한 정서를 발달시키는 데 장애로 작용합니다. 남성은 활동적이고 적극적이며 여성처럼 울거나 두려움을 나타내서는 안 된다는 식의 고정 관념이 남성들의 정서 발달에 매우 부정적임을 깨닫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분명한 사실입니다. 유명한 신문 상담가인 앤래더슨(Ann Landerson)과 상담을 원하는 남자들의 편지를 보면, 대부분의 남자들이 솔직하게 정서적 표현을 하지 않고 지냄으로써 가족 내에서 정서적 고립감을 느끼고, 친밀한 인간 관계를 맺는데 장애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여성적인 감정표현을 억제하도록 사회화된 남자들도 분명히 인간으로서의 두려움과 불안, 슬픔등의 정서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억압하고 지낸다면 단 하나의 남자다운 감정의 표출은 화를 내는 것뿐입니다.

남성은 항상 적극적이고 리더가 되어야 하며, 능동적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남성들에게 항상 긍정적일 수는 없음을 남녀 교제의 예에서 찾아봅시다. 우리 사회는 항상 남자가 데이트를 청해야 하고 청혼을 해야 한다는 고정 관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자들이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항상 염두에 두게 하고 여자의 거절에 상처받지 않기 위해 불필요한 방어 기제를 발달시키게 합니다. 성관계에서도 늘 주도적이어야 한다는 것도 남성들에게는 스트레스가 되고 있습니다. 가족 관계에서 무뎉뎉하고 지배적으로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은 가족뿐만 아니라 아버지 자신에게도 불행한 모습입니다. 가장 인간다운 모습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남성적 역할에 대한 고정 관념은 남성들의 개인적 특성과 자질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적지 않은 비남성적 특성을 지닌 남성들을 불행하거나 특수한 사

람으로 격리시킵니다. 여성적 직업이나 인간관계 지향의 개성을 지닌 남자들은 열등한 일탈자로 대접을 받기 쉽고, 여서에 대한 유월성이나 공격적인 것을 남성성으로 교육받은 남자들 중에는 지적 능력으로 '슈퍼맨'의 대열에 끼지 못하면 자신들의 에너지를 '공격성'에 쏟게 됩니다. 이것은 폭력의 슈퍼맨신드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행과 일탈, 파괴적 범죄 행위 등으로라도 '슈퍼맨'의 대열에 서려고 합니다. 이것은 남학생들 가운데 학력 우수자도 많으나 그만큼 학력 열등자가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슈퍼맨 콤플렉스' 때문에 남성이 여성보다 수명이 짧은 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여성성, 남성성의 이름으로 지워지는 모든 억압과 모순을 깨고 진정한 인간애방의 길로 달려나가는 작은 한걸음이 바로 대동학교입니다!**